歐米情報

愛蘭形勢又惡化

英首相自治案拒否所致로

英國首相 로이드쪼ㅣ지氏는 愛蘭自治案을 拒絶홈으로 因ᄒᆞ야 形勢는 다시 惡化되얏다더라(倫敦電)

英愛交涉斷絶됨

英國政府對愛蘭「싱페」ᆫ黨間의 講和會議는 畢竟交涉이 斷絶되야 在愛蘭英國軍隊는 直히 戒嚴令을 施行하엿난듸 各地方에서 衝突이 頻出ᄒᆞᆫ다더라(路透電)

英失業者 革命絶叫

英國失業者는 漸次惡化의 傾向을 帶ᄒᆞ고 頻々히 革命을 絶叫ᄒᆞ기에 至ᄒᆞ얏더라(倫敦電)

『알메니아』赤色內閣

『알메니아』國은 過激派內閣의 成立을 告ᄒᆞ얏다더라(倫敦電)

獨逸刑法根本改正案

獨逸은 現行刑法의 根本的 改正을 企圖ᄒᆞ야 旣히 草案이 完成되엿더라(伯林電)

下院排日案通過

『갈포니아』州下院議會는 排日案을 通過ᄒᆞ얏더라(桑港電)

支那政局

饑饉借欵調印了

饑饉借欵 四百萬圓은 財政總長周自齊氏와 四國銀行團代表者ㅣ間에서 調印되얏더라(北京電)

極東關係

米海軍大尉射殺됨

浦鹽派遣日本軍에게

浦塩에서 日本兵步哨의 誰何인가ᄒᆞ는 質問에 不應ᄒᆞᆫ 故로 米國海軍大尉가 射殺되엿다더라(路透電)

憲政會와 普選案

標準은 獨立生計者에 在함

憲政會 政務調査總會에서는 十一日 普選案을 附議ᄒᆞ기로 決定한바 標準을 獨立生計者로 함에는 異議가 無ᄒᆞᆫ事로 定ᄒᆞ엿더라(東京電)

原首相과 司令官

原首相은 十一日 立花浦鹽軍司令官과 大庭朝鮮軍司令官과 河合關東軍司令官을 官邸로 招致ᄒᆞ야 事務의 妥協을 ᄒᆞ얏다더라(東京電)

陪審制提議難

陪審制度案은 樞密院을 通過ᄒᆞ기 困難ᄒᆞᆫ 模樣임으로 自然今期議會에 提出키 難ᄒᆞ리라더라(東京電)

常平倉將提案

日本政府는 常平倉設置案을 今期議會에 提出ᄒᆞ기로 決定ᄒᆞ고 豫算其他는 追後審議ᄒᆞᆯ터이라더라

農勞總會代表

(東京電)

第三回農業勞働總會出席者는 十一日의 閣議에서 左와 如히 決定ᄒᆞ엿다더라(東京電)

政府代表 大塚勝太郎
同上 道家齊
使用者代表 田村律之助
勞働者代表 松木圭一

三國海軍協定案

提案者의 眞意思는 果然那邊에 在ᄒᆞᆫ가

黨派上의 操縱

日英同盟內探

日英米의 關係

朝鮮史敎授問題

過日敎育調査委員會에 朝鮮人側委員主張强硬

敎調會經過와 某學務當局談

敎科書調査委員會第一日

總督開會之辭

各道評議彙報

民選之部

○全羅北道

○全羅南道

○慶尙北道

米不賣同盟과 督府

帝國農會聲援依賴에 對ᄒᆞ야 總督府는 拒否ᄒᆞ기로 內定云

公職團懇親會

柳東大敎授歡迎會

敍任及辭令

日英米海軍比較

米海軍의 二倍

英國이 第一位

日本이 第二位

主力艦片舷砲

産業에 必要論

商議聯合會將開

公式回答

金融機關의 不備

舊臘京城金融

鮮米移出

防止는 不可

鮮銀今期業績

總督委員招待會

政務總監發京期

人事消息

商況

株式

東京現株

大阪株式

京城現株市況

大連市況

經濟銀塊

靑島市況

大阪期米

仁川期米

牛皮

物價

●穀物

●紙物

●毛物

쇼셜 發展 (三八)

卅八 텬지의필법입니가(天才의筆法입니가)

빈민굴이라는말을 무심히귀결루돌어흡닌것갓치보이엿스나 오경의가슴가운ᄃᆡ는 참지못할 쏘거운분남이벅혓셔 한참동안 눈썹을못으얏다 만일 말을하얏스면 그쇼리가떠는니여 쇼ᄉᆡ의게의심을밧앗슬것 다 한참잇다가 겨우닙을열어

「죽경씨ㅣ 리영씨는그림을그렷낫가」

죽경이가

「글세요 그사ᄅᆞᆷ은젼문으로그림을비와고 ᄯᅩ텬지ᄂᆞᆫ 자신을가지고잇섯스닛가 물론그림을그릴터인ᄃᆡ 엇지ᄒᆞ야지그ᄉᆞ롬의그림을본적이그리어섯셔요 암으 회에셔사라첫든고ᄒᆞᄂᆞᆫ것보다도 한번도그림사회에낫ᄒᆞ나보지못ᄒᆞ고 업셔진것갓희요」

오경이

「사라진것이 안이지요 일로브터장차낫하나겟지요」

오경은 이와갓치맛고잇다 죽경은다시

「안이요 사람의 팔자갓치 참을수업는것은 업슴니다 그러나 나는으모조록 ᄒᆞ로밧비 그사ᄅᆞᆷ이 속히이그림사회에 이름으도록 간졀히비ᄆᆞᆸ니다」

라고ᄒᆞ엿다 그러나 그말의속ᄯᅳᆺ은속히세상에 낫ᄂᆞ도록 빌기는비나 썩어려웁다는ᄯᅳᆺ이ᄑᆞ함ᄒᆞ여 잇는것갓다 오경은 자긔의 문갑속에셔몃장의그림을 ᄭᅳ어내여 죽경의게보이며

「죽경씨ㅣ이것아 텬재의필법입니가」

죽경은 한장식보더니 고이젹게 니마살을 씻푸리며

「누가그린것인가요」

아경이

「모르시겟셔요ㅣ」

죽경이가

「글세요 모르겟는ᄃᆡ」

오경이

「그곳은……」

죽경이가 ᄌᆞ세ᄌᆞ세보더니 비로쇼 ᄭᅢ쳣는지

「ᄒᆞᄒᆞ 이것이 시유리군도을 식다 그러 올치이것이 한촌ᄲᅩ 호오 필법이 훌륭홉니다 이러한 필법은 누구가 보더지 텬재가 안이라고 하리는ᄒᆞ나도 업겟슴니다」

오경이가 그제야

「이그림이 리영씨가그린 그림이올시다」

이말을들으ᄃᆡ 죽경은 반신반의 한참다시 그림을드려다보다가

「하ᄋᆞ 이것이 리영의그림입니셔? 이갓흔 져조를가지고셔상에 파뭇쳐잇슬ᄭᅡ닭이 업는ᄃᆡ ㅣ 졍말 영의 그림인지알수업는일이올시다」

아경이

「그ᄯᅢ 당신이 먼셔 가신뒤로 리영씨는우리집에 이십일동안이나 머물고잇셔셔 날마다 모든섬의 곳곳을 다사싱(寫生)ᄒᆞ엿슴니다 그즁에 몃장을 나의게 쥬고간것이 지금이 그림이올시다」

죽경이가

「그러면 틀님업는 리영의그림이올시다 이갓흔필법을가지고셔 남이알지못ᄒᆞ게된것은 참 가석한일임니다」

아경과 죽경사이에는 이런말저런말 여러방면으로 니야기가 길어져셔 죽경은자긔가모든예술방면의 비평에 관계ᄒᆞ고 ᄯᅩ 이런 학셩시ᄃᆡ의

地球上에 던진 露西亞의 陰影 (六)

에쓰아이生

禁酒問題